

학교생활

## 겨울방학에 한 봉사 활동 인정되나요?

예비 중3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중3은 아무래도 봉사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을 듯해 가능하다면 이번 겨울방학에 미리 시간을 채워놓으려 합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 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3학년 봉사 실적으로 기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은지 (45·경기 안양시 만안구)

# A

**2월 말까지 시행한 봉사 활동은 전년도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단,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봉사 활동 인정 여부는 학교에 문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봉사 활동 시간의 경우 학년당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과 3년 총합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전에 활동한 봉사 내용은 전년도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경기 발산중 김지수 교사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의 경우 2022학년 고입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한 봉사 활동은 중학 3년간 총 40시간을 만점으로 한다. 2월 말까지의 봉사 활동은 전 학년의 학생부에 기록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봉사 활동은 그 성격에 따라 교내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에 의거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학교에 문의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봉사 활동 시간 축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결정되는대로 학교에서 안내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

### MORE TIP

학년별로 15시간 이상 봉사 시간을 채워야 했던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봉사 활동 시간을 고입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2022 고입에도 이 기조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예비 중3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외에 개인별로 채워야 할 봉사 시간이 없습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입시

## A EBS 〈수능특강〉으로 공부를 시작하거나 목표 대학에 따라 과탐 한 과목 반영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다수 고등학생은 2학년 때 과학1 2~3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신으로 배웠던 과목과 수능에서 선택할 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우지 않았던 과목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 전형에 따라 혹은 목표 대학이 최상위권 대학이나 아나나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용문고 권민우 교사는 “내신으로 공부하지 않았던 〈지구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했다면 EBS 〈수능특강〉으로 공부를 시작하길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처음부터 기본 강의를 듣기보다 EBS 〈수능특강〉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해설 부분의 설명을 꼼꼼히 보면서 공부하다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은 2학년용 인강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합니다.

서울 동대부여고 김용진 교사는 “과학탐구 과목을 혼자 공부하는 게 쉽지 않고 3학년 내신에 대한 부담으로 수능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참고할 점은 수사에서 수능 최저 기준으로 과학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많다는 것이다.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다. 만약 지원할 대학이 과학탐구 한 과목만 반영한다면 새로운 과목에 힘을 쏟기보다 2학년 때 배웠던 〈생명과학〉 등의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

### 내신을 위해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배운 예비 고3의 수능 선택 과목이 고민입니다.

고2에 배운 과학탐구 과목으로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선택하겠다는 아이를 설득해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공부하도록 했는데요. 학과를 결정하지 못했기에 〈물리〉 〈화학〉을 모두 공부해야 학과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후회가 되네요. 〈물리〉 내신 성적도 좋지 않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려면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고2 때 배우지 않아 내신과 수능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장세영(가명 53·서울 중랑구 중화동)

### MORE TIP

입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외에도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상위권이라면 주요 과목에 시간을 더 할애하거나 과학탐구 한 과목 반영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학생부 교과 전형 중 국민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홍익대 등이 수능 최저 기준으로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정시 전형에서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은 경기대 단국대(천안) 상명대 조선대 한국산업기술대 등이 있습니다. 취재 김민정 리포터 mjkim@naeil.com